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 '서울닭문화관' 이 생겼다

# 2층 건물 전체가 세계 각국의 '닭공예품' 으로 가득



- ① 서울닭문화관 전경
- ② 앤틱 스타일로 꾸며진 1층 내부
- ③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닭 공예품들이 놓여 있다.



마감 후 항상 월초가 되면 '이번 달에는 뭐 좋은 기사거리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창에 '닭' 이라고 친다.

그러면 각종 링크들과 카페, 블로그, 게시판, 최신뉴스, 책, 레포트, 웹문서 등 수 많은 곳에서 '닭' 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최신뉴스' 는 기본이고, 네티즌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나 '블로그' 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그날 유독 기자의 눈에 들어 온 낱말이 있었다. 바로 '닭문화관' .

'닭문화관? 뭐지?'

해당 기사를 클릭해서 읽는 순간, '아! 이거다!' 라고 무릎을 쳤다.

## 바로 눈 앞이 '닭천지이다'

초여름 불볕 더위가 비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어느 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서울닭문화관' 을 찾아 나섰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길을 따라 쪽 걸어 올라가다 보면 '은행' 의 외관에서 이곳이 한옥마을임을 느낄 수 있다. 화려하게 치장한 빌딩 속에 위치한 은행과는 달리 기와형태를 갖춘 이곳 은행은 우리 전통가옥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한다.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얼마나 걸었을까. 오른쪽에 닭조각상이 서있고, 벽면에 닭 계



- 1 방명록의 볼펜도 닭모형이다.
- 2 닭모양의 장신구
- 3 미국에서 구입한 닭공예품. 김초강 관장은 가장 애착이 가는 공예품이라고 한다.
- 4 긴꼬리 닭
- 5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의 닭부적
- 6 영국의 도자기 닭
- 7 좌측은 멕시코의 가족술병, 오른쪽은 독일에서 만든 닭공예품
- 8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구입한 비닐로 만든 닭
- 9 텃마당에는 돌로 만든 닭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 10 철을 재료로 해서 만든 닭공예품
- 11 한뫼한뫼 수를 놓아 만든 작품
- 12 닭모양이 장식된 가방

(鷄)자가 선명히 보이는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이 닭문화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마자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Exciting' 그 자체였다. 인터뷰에 앞서 큐레이터의 안내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파악한 후 인터뷰를 시작했다.

### 닭문화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 문을 열다

서울닭문화관(이하 닭문화관)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5년 정년퇴임한 김초강 관장이 사재를 털어 지난해 12월 개관한 사설 박물관이다. 이곳은 지난 20여년간 김초강 관장이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구입한 닭 미술·공예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동안 모은 소장품만 3,000여점. 닭을 주제로 한 민화들과 닭모양의 도자기를 비롯 돌, 나무, 쇠, 비닐, 유리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형형색색의 닭공예품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관람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닭문화관은 아담한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층 모두 닭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앤틱 스타일로 꾸며진 1층은 상설전시관 겸 카페. 주방의 찻잔은 물론이며 스푼, 메뉴, 설탕 그릇에서부터 식탁, 식탁보, 의자, 스탠드, 문고리, 신발 털이개, 심지어 화장실의 거울과 휴지통, 휴지곽까지 전부 닭과 관련된 물건으로 꾸며져 있다.

2층은 기획전시관으로 쓰이는데 1년에 4~5차례 정도 테마전이 열린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는 '꼭두닭과 민화전'이 열리고 있었다.

조선 후기▶  
상여 장식 조각



상여(喪輿)를 장식한 인형을 꼭두라고 하는데, 이 꼭두는 여러가지 상징을 나타내는 동물들과 망자를 돌보는 수행자 혹은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닭은 하늘에 망자가 가고 있음을 알리고, 하늘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운반기능을 한다.

이 꼭두닭은 상여의 네 귀퉁이에 보통 4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붙어있고 예술가가 아닌 상여를 만드는 이들이 직접 나무를 깎아 제작한 것이라 기교와 멋스러움 등 예술성은 다소 떨어지나 만든이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어떤 것도 같은 모양이 없어 독창성이 돋보이며, 화려한 색채 감각은 현대미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모양과 색으로 암컷, 수컷을 구분하는 섬세함까지 엿볼 수 있다.

꼭두닭은 해학적이고 순수한 우리민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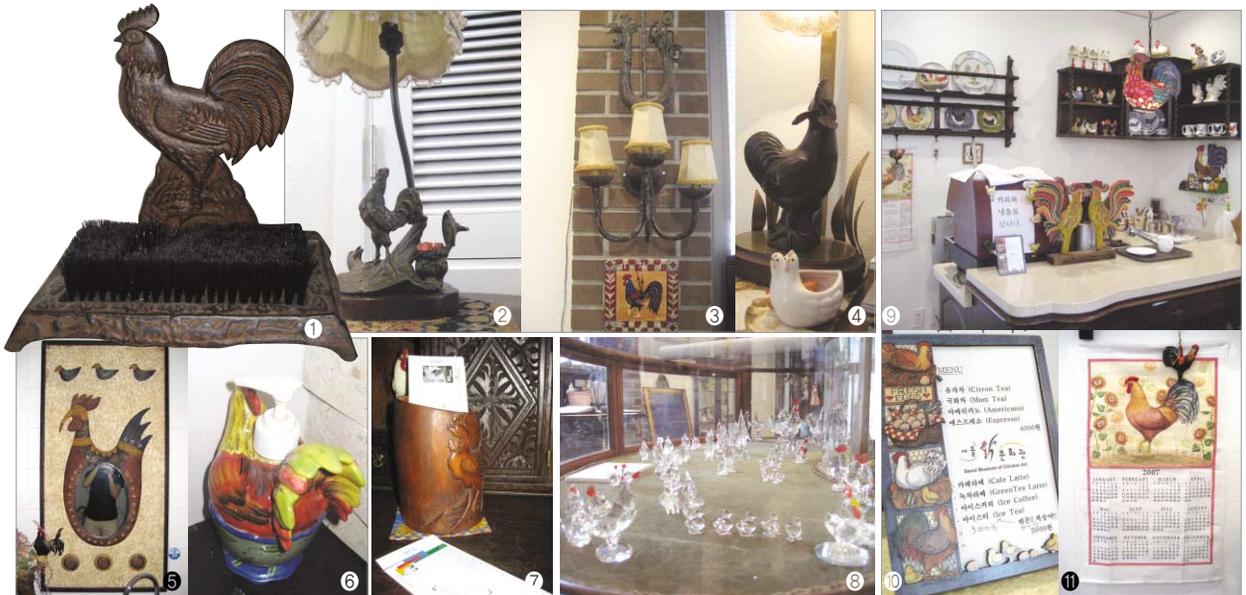
### '닭'을 통해 세계와 만나다

김초강 원장이 지금의 닭문화관을 열 수 있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 '꼭두닭'이다.

20여년 전 김 원장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목상여를 쪼개 그 장작으로 밥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눈앞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그때부터 꼭두닭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모은 꼭두닭만 약 천여점에 이른다.

김초강 관장의 닭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닭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길게 인간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애환을 함께 한 친숙한 동물이에요. 닭은 다산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닭의 빛은 벼슬, 발은 부지런함, 화려한 꼬지깃은 부귀영화를



① 신발털이개  
②~④ 닭모형의 갖가지 스탠드들  
⑤⑥ 화장실 내부, 거울과 물비누통까지 모두 닭모형이다.

⑦ 나무에 닭이 조각되어 있는 티켓박스  
⑧ 유리로 만든 닭  
⑨~⑪ 주방의 찻잔은 물론 메뉴, 달력까지 모두 닭모형이다.



① 계관도 :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수탉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부귀공명을 염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닭문 화관을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 ② 상어를 만들때 쓰였던 닭모양의 나무못
- ③ 봉황꼭두. 조선 후기까지 꼭두는 용과 봉황으로 조각됐는데 용과 봉황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죽을 때는 귀천없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여러가지 종류의 꼭두닭들
- ⑤ 상여위의 여러가지 상징을 나타내는 꼭두들

상징하죠. 그리고 서양에서도 닭은 새벽을 알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풍향계나 교회 십자가 장식에 쓰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예술로 승화되어 생활 문화 속에 포함돼 남겨진 유품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김 관장은 무척 아쉬워했다.

“우리나라가 농경문화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오기까지 많은 장인들의 생각과 기술로 기록되고 남겨진 닭의 문화유품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우아하며 또한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더욱이 민화 속의 닭이나 상여위 꼭두닭은 우리만의 고유문화입니다. 이들은 서양의 닭과 함께 있어도 조금도 뒤지지 않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랑스런 문화유품입니다”

김 관장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중 하나인 ‘닭’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우리의 잊혀져 가는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닭문화관을 연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박물관이 아니라 문화관으로 지었다고 한다.

전시장이 좁아 3천여 점의 소장품들을 모두 전시할 수 없어 1년에 4~5차례 걸쳐 색다른 테마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꼭두 닭과 민화전’이 끝나면 오는 7월 11일 ‘우리닭

과 수(繡)닭전’이 열릴 계획이며, 10월에는 ‘나무닭과 닭우표전’, 2008년 1월에는 ‘생활문화전과 어린이문화전’이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9~10월경 서울시 후원으로 ‘성공하려면 닭그림을 걸자’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11월경에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김 관장의 닭에 대한 예찬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인터뷰는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끝이었다. 인터뷰 말미에 김초강 관장은 남편과 아이들의 지원이 없이는 ‘닭문화관’을 지을 수 없었다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빼놓지 않았다.

서울닭문화관.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공간이 온통 ‘닭’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지만 김초강 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뜻을 함께 할 이가 있다면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 제2의 닭문화관을 지어 세계 널리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김초강 관장의 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 한 그 바람은 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